



교섭속보

11호

2023년 7월 4일 화요일 <http://korea.nodong.org> 발행/고대의료원지부 발행인/송은옥

파업 찬성률 90.5%

파업의 급행열차 예열 완료!

이제는 승리만 남았다!

재적인원	투표자수	투표율	찬성	찬성률	반대	반대율
4,263명	3,617명	84.8%	3,273표	90.5%	344표	9.5%

투표율 84.8%, 파업찬성률 90.5%

파업에 대한 조합원들의 분노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6월 28일부터 7월 3일까지 6일간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는 총 조합원 4,263명 중 3,617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 중 파업찬성률은 90.5%로 기록됐다. 이로써 직원 가치를 찾아가기 위한 준비는 끝났다.

환자이송 요청 공문 발송

필수유지업무 근무표 작성으로 파업 준비 착착.

환자와 직원 모두에게 행복한 병원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 우리 지부는 환자들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환자를 두고 떠나올 수 없는 조합원이 생기지 않도록 이미 6월 29일경 의료원과 3개 병원에 [파업돌입에 따른 환자 이송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또한 최소한의 인력을 남겨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필수유지인력을 남기고 파업을 준비하고 있어 의료 대란으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 예상된다.

환자 이송 요청 공문에 대한 조치를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파업에 대한 책임을 노동조합과 직원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의료원은 모든 조치를 조속히 진행해야 할 것이다.

중앙노동위원회 조정회의

7월 5일, 7월 11일 2차례 예정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사 대표가 참가하여 교섭이 결렬된 경위 및 요구안에 따른 내용들을 듣는 시간을 가지고 최종 결정을 하게 된다. 1차 조정회의는 21년 진행된 바에 따르면 노사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노동조합의 요구안과 이에 따른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는 시간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의료원이 전향적 태도와 긍정적 결단을 선택한다면

자율타결의 마지막 희망은 있다.

21년의 파업이 재연될지 22년의 영광이 재연될지

의료원의 결단으로 마무리 될 것이다.

전 조합원 출근 선전전

7월 10일(월)~ 7월 12일(수) 3일간

장소 및 시간 : 각 병원 로비 / 오전 7시 30분

1차 전 조합원 조출 선전전

산별현장교섭 투쟁 승리를 위한 전 조합원 조출 선전전을 진행했습니다.
투쟁하는 자만이 쟁취할 수 있다는 대명제를 다시 한 번 깨닫게 됩니다.
승리하는 날까지 함께 합시다!

